

제 4 장 문 화 공 보

제1절.. 문화예술 행정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제3절.. 공보행정

제1절 문화예술 행정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금정문화회관·금정체육공원·금정구민체육관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관련 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정 예술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정착 발전시켜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부산대 시범거리에서 “젊음의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실 상부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

□ 제14회 금정예술제 개최

지역브랜드 가치창출을 통한 금정구 위상 강화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14회 금정예술제는 ‘Smile! Geumjeong, 금정산성을 품다.’를 주제로 2009. 10. 9. ~ 10. 11. 3일간, 스포원(금정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최장 금정산성(18,845m, 사적215호)을 1/100로 축소 4대문과 성곽을 조성하여 산성의 정취와 아늑한 행사장을 만들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화합·예술·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산성의 역사성과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하였으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관광자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신중한 대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행사,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는 취소,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구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개막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 43,835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장애우 특별전 개최 및 개막식 행사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노래자랑, 장기자랑, 민속놀이 경연으로 구민 화합을 도모하였다.

일정별 다양한 공연·전시와 교육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금정산성을 주제로 한 행사장의 넓은 공간을 활용한 참여·체험·판매 등 프로그램 다양화로 관람객 모두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0년도 제15회 금정예술제는 금정산성과 관련된 대표 프로그램 개발과 경쟁력 갖춘 관광 연계형 축제로의 변환과 예술적 감성과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축제로 나아갈 예정이다.

〈 제14회 금정예술제 행사내용 〉

구 분	행 사 명	장 소	참여인원
개막 행사	금정어울림한마당, 흥미진진이색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불꽃쇼	경륜공단 특설무대, 수변공원, 전시실	43,835명
공연 행사	10.9.(금) 연변널뛰기, 줄타기		
	10.10.(토) 금정합창제, 전통성년식, 금정무용제, 노을&달빛 콘서트, 금정산성어울림한마당		
	10.11.(일) 시민노래자랑, 금정어울림한마당, 금정열린음악회(음악 협회), 스마일금정피날레공연/가을in가요!, 소망풍등 올리기		
전시 행사	야생화전시,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 깃발시화전, 금정사진전, 금정미술전, 짚공예전시, 국내·외 희귀 표본 전시		
체험참여 행사	금정산성 4대문체험, 가마타기 체험, 민속놀이, 작가와의 만남, 사랑을 담은 특수교육 은애 특별전, 한방체험, 먹거리장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금정구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리고 금정발전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정월 대보름 행사를 2009. 2. 9.(월) 경륜공단(금정체육공원) 북측 주차장에서 개최 하였다. 2007년부터 민간주도형 지역별로 개최하던 행사를 2009년에는 구에서 직접 주관하여 행사를 구 전체로 확대하여 7,000여명의 많은 구민이 참여하였다.

전통 세시풍속을 보존·육성하고 구민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소원성취를 위한 사전 소원지 달기, 풍물패들의 지신밟기와 부럼나누기, 소리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민속놀이 체험행사로 구성되었으며, 구민의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끼운 달집태우기로 활활 타오르는 달집 불이 최고점에 도달할 무렵 나오는 관람객 탄성과 강강수월래는 옛 정취를 만끽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의 바램과 구민의 소망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금정구 홍보대사 위촉

우리 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연고가 있는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행사 개최 시 적극적 활용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금정구 홍보대사 위촉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2009년 3월 금정구에 연고를 둔 유명인사 12명의 추천을 받아 3월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직원 및 구민 1,323명의 설문 실시 결과 다수의 인기를 얻은 가수 설운도를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설운도 홍보대사는 금정구 구서1동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다양한 히트곡으로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아 선정되어, 2009년 4월 23일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설운도 홍보대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부산 금정구를 전국에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향후 제작될 금정의 노래를 작곡 및 노래하여 금정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금정문화원

우리지역 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을 위해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사업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당봉 금정해맞이 행사, 장전동 향토지 발간, 청소년을 위한 시와 춤의 만남, 금정예술제 참여(제14회 금정백일장, 사생대회),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문화탐방 운영 등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추진하였고, 중앙부처의 기금을 교부받아 이주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강좌, 어르신을 위한 땡땡땡 실버교실 한지인형 강좌를 운영하여 상대적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문화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 지역의 자매문화원 간에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을 벌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정월대보름행사, 문화교실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협회 8개 분과 39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주관 또는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각 분과 협회별 기획행사 등 우리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더욱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현황 〉

계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국악협회
389	71	87	35	27	18	35	47	69

□ 구민홀 상설전시장 운영

'94년 지역 예술인의 창작성 발표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홀 2층에 설치된 상설전시장은 구민 소장 작품 전시, 지역 예술인의 개인전, 아마추어 동호인전, 공모전등 지속적인 전시 유치로 예술인들의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96년 9회, '97년 4회, 98년 3회, '99년 7회, '00년 6회, '01년 12회, '02년 10회, '03년 16회, '04년 15회, '05년 12회, '06년 10회, '07년 10회, '08년 9회, 09년 7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예술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작품전시회 개최는 구민의 예술적 감성개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금정문화회관 운영

금정구민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금정구 구서동 48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6,453㎡ 규모로 2000년 준공 개관하여 생활문화공간, 공연공간,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등을 갖추고 부산의 동·북부권 주민들의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최고의 현대화된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금정·기장·양산지역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요람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의 거리 조성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범어사 일주도로인 범어로에 조성한 문화의 거리는 '94~'97년까지 문학비 3개소, 그림비 2개소를 건립하였다. 또, 3·1운동 유공비를 범어사 학생·승려 만세운동 발원지 인근 범어로변에 이전 준공하여 금정산과 범어사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문화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문화의 거리는 이 지역을 찾는 부산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금정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킴과 동시에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

인근 남산동에는 2003년 6월 (사)요산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요산 김정한의 생가가 복원되어 관련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요산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자긍심을 고취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가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문화 공간 현황 〉

계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문예·기념비	동상	김정한생가
21	1	3	2	1	3	9	1	1

〈 문화회관 현황 〉

명칭	소재지	좌석수	관리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구서1동 481	대공연장 868석	금정구청
		소공연장 330석	

〈 박물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장전2동 산30	1,900㎡	유물 21,235점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청룡동 546	502㎡	22종 283점	범어사
오륜대 한국 순교자박물관	금정구 부곡3동 1-4	1,591.76㎡	유물 등 3,000여점	한국순교 복지수녀회

〈 도서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서동도서관	금정구 서1동 150-73	610.2㎡	도서 64,694권	부산시교육청
금정도서관	금정구 청룡동 산30	8,466㎡	도서 67,002권	금정구청

〈 미술관 현황 〉

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자
		면적	소장품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구 금성동 285	271.4㎡	조각,회화 등 271점	정영재

〈 영 화 상 영 관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씨너스오투스네마	금정구 부곡2동 298-2	총 1,175석	김 삼 여
MMC 부산대	금정구 장전동 292-4	총 1,186석	장 현 증
롯데시네마부산대	금정구 장전동 40	총 1,564석	김 분 조

〈 문 예 · 기 념 비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황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신정용열사 추모비	금정구 남산동 산1-1	'96.4.19.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 김 정 한 생 가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생가	남산동 661-4번지	2003. 5. 30	요산기념사업회

〈 동 상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박차정 의사 동상	금정구 구서1동 481번지	2001. 3. 1	금정구청장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1점, 시지정문화재 63점이 지정되어 있고, 범어사 정보박물관에 소장중인 불교 관련 그림과 오륜천주교 순교기념관에 보관중인 순교자 관련 유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

2. 문화재 보호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우리나라 성곽 중 최대 규모로 승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 『금정산성』(길이 18,845m)과 우리나라 5대 사찰 중 하나로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 기념물인 등나무군생지, 63점의 문화재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및 장대의 복원사업은 국방유적지로서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 『노포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되어 각별한 보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관리 실태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의 일환으로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청(금정진 관아) 복원을 추진하고자 2003년부터 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표조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복원기본계획 수립, 홍보와 더불어 市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방연제 도포사업과 노후한 전기시설 정비사업 및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나. 보호 관리 대책

□ 화재예방

중요 목조 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8명) 24시간 교대근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4, 10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문화재 보수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09년까지 총사업비 7,152백만원을 투입하여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 보수 4,834m를 보수 정비하였고,

특히 1990년 이후 성곽보수가 체성 형태로만 보수 승인되었으나, 2009년 보수공사 시행시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 자료 고증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여장 설치로 제 모습을 갖춘 웅장함과 불거리 제공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장기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에는 사업비 2,485백만원을 투입하여 산성고개 상곽잇기 사업과 성곽보수 및 망루 보수정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성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중이다.

나. 범어사 대응전 주변 정화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응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코자 노후, 퇴락, 조잡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요사채 증·개축사업은 안심료 등 총10건에 11,556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도 사업에 1,160백만원으로 범어사 대응전 부분 보수와 화장실 보수 및 오수차집관로 설치, 2002년도 사업비 400백만원으로 도로 보수 및 오수 차집관로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 쾌적한 문화유적지 환경조성을 위해 안내소 및 화장실 등을 정비하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사업 및 전기 시설 정비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범어사 정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1999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다. 연면적 505.44㎡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여 시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1998년 지정) 전수학교인 동래여자중학교와 동래지신뱃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2003년 지정) 전수학교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전승보조금을 지원하여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예술행사 개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성장(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 2004년 지정) 기능보유자 박한중 선생님은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한 조선전기의 대형 동종을 주성하는 사형주조공법과 상원사종의 정밀주조기법을 전통적인 사형주조방식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우수한 소리와 아름다운 문양으로 극찬 받는 한국종의 신비로움을 제대로 계승하고 이와 함께 주성장의 전승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5.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락은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 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 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귀의주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관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50백만원 사업비로 등나무 군락 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6. 금정산성 장대복원 낙성

금정산성의 유일한 장군 지휘소인 장대가 306년 전 건립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금정산성 축성일(2009. 5. 25.)에 맞추어 전통방식으로 재현한 장대낙성식이 개최되었다. 금정산 해발 475m에 위치한 장대는 1703년(숙종 29년) 금정산성(길이 18만km) 전체를 내다볼 수 있게 축조된 시설물(1동 27.3㎡)로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소실된 이후 복원 전까지 터만 남아 있었다.

복원된 장대는 단층 누각 양식으로, 당시의 위용을 재현해 내기 위해 조선 시대 군기(軍旗)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이 그려진 14개의 깃발을 장대 주변에 설치했다.

낙성식은 2009. 5. 23.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추모목념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 장대 복원 경과보고와 낙성식 제향, 구청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낙성을 계기로 금정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전통의 도시 금정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7. 향토문화재 지정

천년 고찰 범어사와 금정산성 등 많은 보물과 사적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비문화재를 우리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점차 사라져 가는 향토 역사를 계승 보존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게 되었다.

2008년도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재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향토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조사된 11점을 상정하여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9점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금정산의 어원 '금샘'이 제1호로 선정됐다. 금샘은 특히 '세종 실록지리지'(1432년)에도 그 위치와 크기가 기록돼 있을 만큼 지명 유래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갖지만 아직 그 어떤 문화재로도 등록된 바가 없다.

○ 향토문화재 목록

지정번호	명 칭	소재지	시 대
1	금 샘	청룡동	-
2	해 월 사 터	금성동	조선
3	계명봉 봉수대	청룡동	조선
4	조 정 언 비	두구동	조선
5	황산이방최연수애홀역졸비	선 동	조선
6	부사민영훈거사단	부곡동	조선
7	별장 김시도 영세 불망비	금성동	조선
8	수의상국이공만직영세불망비	선 동	조선
9	경거가선대부양공유하이혜불망비	청룡동	통일신라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향토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부산지역 문화재 보존에 있어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향토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홍보 및 안내판 설치, 주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향토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할 것이다.

8. 관광금정 구축

2008년에는 금정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금정의 길잡이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금정관광안내지도 『한 눈에 둘러보는 금정』 5,000부를 제작하여 관광 안내소,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등에 배부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하루 평균 수천명이 이용하는 금정산성 4대문과 장대 등에 관광해설 표지안내판을 설치하고 노후 훼손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두구동 연꽃소류지에 편의시설인 전망데크, 관람가교, 안내판을 보수·정비하고 등 의자 및 임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금정의 문화유적지,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체험관광을 도와주기 위해 관광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어사, 금정산동문 등 외래방문객의 방문이 잦은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금정산성 편의시설 정비와 범어사·금정산성일대에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하고 금정산성에 대한 구조와 명칭 등에 관한 리플렛 제작, 관광안내지도 제작, 두구동 연꽃소류지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금정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아름다운 우리고장 금정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특색에 맞는 자원을 발굴·관리하여 관광금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광금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총 현 황 〉

(2009. 12월 현재)

(단위 : 점)

계	국가지정문화재 (11)					시지정문화재 (63)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74	-	9	1	1		40	1	2	1	19

〈 국 가 지 정 문 화 재 〉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250호)	범어사 삼층석탑 (梵魚寺 三層石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탑으로 당시의 불탑 및 조각수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1963.1.2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419-3호)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서울 광영대 소장본이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음. (1512년 중종 7)	2002.10.19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 (梵魚寺 大雄殿)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창한 목조 건물로 불당의 구조 및 양식이 잘 나타나 있음	1966.2.2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1461호)	범어사 조계문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한 일주문의 걸작품임	2006.2.7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894-2호)	주범망경 (注梵網經)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인데 줄여서 주범망경이라고 함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224-2호)	불조삼경 (佛祖三經)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 그리고 중국 위양종의 초조인 영우의 위산경책 등 불경 3종이 합집된 것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5호)	금장요집경 (金藏要集經)	이 책은 북제(北齊)의 승려 도기(道紀)가 각 경전에서 불교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편찬한 7권 가운데 2권(권1-2)임	2007.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6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이 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로서 개금시(改金時)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기문과 불상기인발원축을 통하여 석가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수기삼존불로 조성	2007.9.1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1595-2호)	목장지도 (牧場地圖)	숙종 때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목장의 실태에 대한 그림과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08.12.22	부산대학교 도서관내
사 적 (제215호)	금정산성 (金井山城)	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임란 이후 현 규모로 조성된 국방유적임	1971.2.9	금성동일원
천 연 기 념 물 (제176호)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藤나무 群生地)	수령 100년생의 등나무 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면적 55,934㎡)	1966.1.13	청룡동 산2-1 범어사경내

〈시 지 정 문 화 재〉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9호)	오층석탑 (五層石塔)	전형적인 오층석탑으로 1층 4면에 각 천왕의 특징이 뚜렷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음	1972.6.26	장전동산30 부산대학교 박물관앞
유 형 문화재 (제11호)	원호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호암내
유 형 문화재 (제12호)	원호암 서편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호암내
유 형 문화재 (제15호)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 幢竿支柱)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대형 기치를 걸어두는 지주로 장식이 전혀 없어 간결 소박한 멋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16호)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등으로 각 부분이 8각으로 되어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25호)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동래부사였던 이안눌이 범어사를 방문하고 지장전 옆 바위에 새긴 시를 목판으로 판각한 것 (1609년 광해군 원년)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6호)	『천수』 책판 (千手 冊版)	7판으로 된 천수경판으로 김해 감로사에서 개간한 것을 범어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 (1676년 숙종 2)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7호)	『어산집』 책판 (魚山集 冊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범어사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범응집의 일종으로 범패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8호)	『범어사기』, 『범어사 창건사적』, 『범어사고적』 판 (梵魚寺紀, 梵魚寺 創建史蹟, 梵魚寺古蹟板)	범어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새긴 3종의 목판으로 古木板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9호)	『선문촬요』 책판 (禪門撮要 冊版)	중국 역대 선사들의 저술과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0호)	『권왕문』 책판 (勸往文 冊板)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의 권왕가, 자책가, 서왕가를 언문으로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2호)	태전화상주심경 (太願和尚柱心經)	당나라 고승인 태전화상이 반야심경에 주석을 한 책 (1411년 태종 11)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3호)	함허어록 (函虛語錄)	조선초 고승인己和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 불교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임 (1440년 세종 22)	1999.9.3	범어사 성보 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 (指空直旨)	인도 승려인 지공선사의 진리의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한 책 (1475년 성종 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5호)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당나라 원각이 수행과정에 대해 적은 책으로 1381년 판본이 보물 641호로 지정됨 (1542년 중종 37)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6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으로 1378년 판본이 보물 705호로 지정됨 (1562년 명종 1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7호)	육조대사법보단경 (六朝大師法寶壇經)	禪宗의 6대조 慧能의 일대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경전처럼 존중 받는 책 (1569년 선조 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8호)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 한 책 (1570년 선조3)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석가탄생에서 1334년까지 고승대덕의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37호로 지정되어 있음 (1430년 세종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0호)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원나라 몽산화상 법어를 요약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768호로 지정되어 있음 (1579년 선조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1호)	법화경 (法華經)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문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1527~1711년 중종22~숙종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1호)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1869년 제작, 세로350cm 두루마리형으로 사천왕상 단독으로 그려진 불화는 현재 범어사 소장본이 제일 규모가 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2호)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기년명이 뚜렷하여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19세기 명문서식과 조선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3호)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자애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관음보살도로서 관음전 전각의 관음불상의 후불화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4호)	범어사 의상대사영정 (梵魚寺 義湘大師影幀)	고려시대 양식 계승, 1767년 작품으로 조선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63호)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梵魚寺 捌相·獨聖·羅漢殿)	한 채에 세 법당을 연이어 붙인 길쭉한 건물로서 1613년 묘전화상이 나한전을 창건, 1705년 명학스님이 팔상전을, 1905년 학암스님이 현재의 건물로 새롭게 중건함	2006.7.3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탕화이다 대형 화면에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정의 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8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1882년에 제작 상·하단으로 나누어 진 화면의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함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대웅전 내부 우측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신중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0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이며, 작품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특히 대좌의 묵서명에 의해 제작시기, 봉안처, 조각승 등이 확실히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1호)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 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那三尊佛坐像)	관음전 목조불상과 함께 조각승 진열의 작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3호)	범어사석조연화 대좌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下臺石)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 중 폭이 147cm에 이르는 규모가 큰 8각의 하대석이다.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2호)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미륵전에 단독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현재 범어사에 봉안된 목조 불상 중 규모가 가장 큼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6호)	불설장수멸죄호 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 護諸童子陀羅尼經)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책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삭가세존(釋迦世尊)이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에게 일체 중생의 멸죄장수(滅罪長壽)의 법을 설(說)한 경	2007.9.7	금정중학교 (남산동385번지)
유 형 문화재 (제80호)	금강반야바라밀 경(金剛般若波 羅密經)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졌던 대표적인 불교 경전 중의 하나로서 금강경(金剛經) 또는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불림.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81호)	보리달마사행론 (菩提達摩四行論)	달마의 선사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고, 행입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생활방식으로 사행(四行)이 있음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 월 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82호)	선문염송집 (禪門揜頌集)	이 책은 한국 선불교에 초석을 놓은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이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看話禪)의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염·송·사당거화(拈·頌·士堂擧話) 등 중요한 말들을 모아 총 30권으로 집성·편찬한 책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90호)	범어사 동종 (梵魚寺 銅鐘)	1728년에 제작된 범어사 동종은 우리나라 18세기 범종 주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라도 출신 김성원과 김선봉이 주성한 것으로 현존하는 18세기 범종으로는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 작품.	2008.9.1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93호)	국청사 소장 강희5년명 금고 (國淸寺 所藏 康熙五年銘金鼓)	1666년에 조성된 국청사 금고는 직경이 65.3cm에 이르는 제법 규모가 큰 작품으로 일부 산화된것 외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조선후기 금고의 선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96호)	범어사 원호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본 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 뭉툭한 코, 머리의 비례가 짧음, 대의의 특징 중 목 좌우측 옷깃이 역삼각형을 이룬 점, 대의 끝자락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으로 처리된 점 등은 모두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혹은 보살상에서 흔히 엿보이는 특징과 유사	2008.12.16	원호암
무 형 문화재 (제12호)	주성장(鑄成匠) <기능보유자> 박한중(朴漢鍾)	조선전기 대형 동종의 사형주조방식과 정밀주조기법을 전통적인 사형주조방식으로 재현하여 우수한 소리와 아름다운 문양의 한국종의 신비로움을 계승	2004.10.4	<주소지> 부곡2동 235-5
기 념 물 (제15호)	금정산성부설비 (金井山城復設碑)	1808년 금정산성을 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사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비	1972.6.26	장전동 482
기 념 물 (제42호)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삼한시대 후기나 삼국시대 초기의 분묘 유적으로서 주거지 2동, 토광묘 45기, 옹관묘 6기에서 토기, 철기, 석기 등의 유물 출토	1996.5.25	노포동 142-1,2
민속자료 (제1호)	황실축원장엄수 (皇室祝願莊嚴繡)	한말 황실에서 범어사에 하사한 장엄수로서 당시 궁중 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99~190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호)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順治8年銘 靑銅銀入絲香盃)	조성연대, 조성지역, 봉헌지 등이 명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향완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651년 효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4호)	도광명유제양이부 대발 (道光銘鑄製 兩耳附大鉢)	불교 공예품 중 의식법구로서뿐 아니라 사찰의 바 루공양 의식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22~5년 순조 25~28)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5호)	동치원년명 범어사 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 金鼓)	고려시대 조성된 금고 양식을 계승한 조선후기의 대형 금고로서 조성연대,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려 주는 자료임(1862년 철종 13)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6호)	선방 축성패 (禪房 祝聖牌)	사찰 선방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로서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임.(한말)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0호)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주색지에 백색선묘 기법을 지닌 비왕실 계층 민중 불화의 백색선묘 불화의 흐름을 이은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1호)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표현기법이 동일, 제작 시기는 1860년대로 조선후기 불교미술연구에 귀중 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2호)	범어사 석가 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1887년 제작,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 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4호)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1891년 제작으로 범어사의 불교미술양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1호)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尊牌)	조선시대 원패의 일반적인 형태,조선후기 불교의식 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2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조선후기 불단 봉안 목패의 기본형태인 능화형 주연과 연화대좌 및 운룡문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3호)	범어사 목조 옴마니반메흠소통 (梵魚寺木造 옴마니반메흠疏筒)	조선후기 소통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교의식과 불교공예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24호)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정방형에 가까운 몸체와 우진각형 뚜껑의 기본골격은 목재로 가구하고 그 표면을 어피로 감싼 후 각 모서리마다 황동 장식으로 마감한 조선후기의 인통으로 대찰(大刹)에서 제작하여 전해지는 불교 공예품으로 드문 유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5호)	범어사 연 (梵魚寺 輦)	가마채인 네 개의 손잡이, 작은집 모양의 몸체, 돛형식의 옥개로 구성되어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그 시대의 연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6호)	범어사 바라 (梵魚寺바라(饒鉞))	낫쇠를 두들겨 제작한 방자유기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6호)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2006.7.3	금성동280일원
문화재 자 료 (제44호)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 城僧將印)	승병의 통솔 및 관할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승병관계를 실증적으로 알려주는 소한한 자료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5호)	범어사 자수수복문 병풍 (梵魚寺 繡壽福文 屏風)	조선 말기 불교에 뜻있는 궁인(宮人)이 제작하여 발복 청원의 뜻으로 범어사에 공양한 것으로 보이며 자수의 기법은 뛰어나지 않으나 각 글자의 색조를 달리하여 녹(綠), 청(靑), 자(紫), 남(藍), 황(黃), 홍(紅), 흑(黑), 백(白) 등 최소 8가지 이상의 자연 염색된 비단실로 수 놓여짐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8호)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內院庵 石造菩薩坐像)	눈, 코, 입이 작은 편이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고. 수인은 두 손 모두 땅을 향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두건과 수인을 통해 이 보살상은 지장보살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도상은 좀 더 연구 필요함.	2008.12.16	범어사 내원암

제3절 공보행정

1. 공보행정의 기본방향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보행정의 목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선진 복지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구는 세계화 추진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기법을 개발해 보다 앞서가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방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행정에서 새로운 구정 시책에 대한 비판과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구정모니터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알찬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대 구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 행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보행정의 방향을

- 첫째,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 둘째,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 셋째, 금정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정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등)를 통한 홍보

구정의 각종 시책 등 보도자료를 구 출입 7개 언론 방송사를 비롯하여 총 20개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다수의 주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다.

언론매체는 전파를 활용하여 다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과 지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공중파 TV 매체의 지방뉴스시간 등을 활용하여 구정시책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방송 매체인 CJ케이블 방송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소식을 방송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각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사회면, 포토뉴스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구정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방송은 전달 이용 범위가 넓고 현장감이 있어 호소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신문은 독자층이 광범위 하고 공신력이 높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언론매체도 홍보여건의 변화 추세에 따라 개방화·생활화 되고 있으므로 언론인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브리핑 제도의 정례화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 2009 언론보도 현황

- 언론보도 : 605건(홍보성보도 572건, 시정성보도 17건, 중립성 보도 16건)
- 자료제공 : 중점사업, 당면현안업무, 우수시책, 수범(미담사례) 등

나. 월간 「금정소식」 발간

구민의 알권리 및 다양한 구정홍보와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일 「금정소식」을 제작 발행하여 구정 주요소식이나 생활정보, 지역미담 사례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정소식」은 지난 88년 1월 우리구 개청과 더불어 발간해 오다가 시대적 여건 변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2년 4월부터는 타블로이드 16면으로 증간하고 현재 매월 40,000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e-book 금정소식」을 발행하여 홈페이지에서 상시 구독 가능하고 인터넷 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인 메일로 송부해 주는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금정소식지 발행 : 12회 48만부(매월 4만부)

- 2007년 2월부터 4만부 발행
- 배부처 :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 지하철역, 아파트, 대형마트, 영화관

- 인터넷 신문(e-book 금정소식) 발행 : 12회
- 메일링서비스 신청 구독자 수 : 4,500여명

다.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환경 변화에 발맞춘 홍보 방안으로 2005년 8월부터 구 홈페이지 내에 동영상을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구정행사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구정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콘텐츠와 생동감 있는 동영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 방송국 운영 : 홈페이지 내 상시 방영, 시정뉴스 및 타기관 연계 운영
-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5편), 교양강좌(21편), 영상알리미 (27편)

라.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민선4기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 추진사업에 맞춰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구정을 찾은 국내외 내방객과 국제교류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하였다.

우리구의 역사성과 자랑거리,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구정운영방향과 역점 사업들을 부각시켜 민선4기 금정의 재도약상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 영상물 제작 : 4개국어, 3종 550대
- CD 기념품증정용, DVD 행사상영용, VHS 자료보존용

마. 2009 다시보는 구정사진전 개최

2009년 한해 구 주요사업과 각종 행사기록 사진을 주민 홀에 전시하여 구청 내방객과 직원들에게 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2009. 12월부터 한달가량 1층 주민홀 로비에 30점을 전시하였으며 올 한해 금정을 빛낸 일과 주요 행사, 대형 추진 사업등으로 코너를 구분 전시하였다.

2009 언론에서 본 금정구청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금정체육공원에서 액운을 떨쳐버리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에 만들어진 달집은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최고봉인 고당봉 높이 801.5m를 100의 1로 축소한 8.01m로 금정구민은 물론 부산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성을 담았다.

(연합 2.3/ 국제신문 2.5/ 조선일보 2.5/ 동아일보 2.6/ KBS-R/TV 2.8/ MBC-TV 2.8/ 한국일보 2.9/ 부산시보 2.11)

【‘실버 우체국’ 선발, 일자리 창출】

연간 41만5천건에 달하는 지방세 납부 고지서 배달 업무를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버 우체국”제도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연합 1.16/ KNN-TV 2.19/ 부산일보 2.19/ 국제신문 2.20)

【‘친환경 주차사업’ 부산서 첫 결실】

도로가 좁아 주차 및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길의 주택이나 담을 허물어 녹지와 주차공간을 동시에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친환경 주차사업’이 부산서 첫 결실을 봤다. 금정구는 구서동 742의 21번지 일대 주택 10채의 담을 허문 뒤 마당을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조성골목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고, 가구별로 방범창 등을 달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연합 2.19/ CJ케이블 3.6/ 부산일보 3.7/ 연합 3.7)

【금정산성에 전통복장 ‘수문장’ 배치】

부산 금정구는 3월 28일부터 금정산성(총연장 1만8000여 m)을 찾는 등산·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선시대 성문을 지키던 수문장의 복장을 한 문화재 관리인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주말·휴일 낮 시간에 금정산성 일원을 돌면서 문화재관리업무와 산불방지 계도활동 등을 펼친다.(연합 3.27/ MBC-TV 3.28/ 국제신문 3.28/ 동아일보 3.30)

【국민가수 설운도씨, 금정구 홍보대사 위촉】

구서동에 거주했던 국민가수 설운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금정예술제 등 축제에 초청공연, 애장품 경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정의 노래 작곡을 의뢰할 예정이다. 설운도씨는 인기가수로서 대중적 이미지와 구 이미지를 접목하여 다양한 홍보대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제신문 4.21/ 부산일보 4.21/ 연합뉴스 4.23)

【상권부활 꿈 담은 부산대앞 거리 패션쇼】

부산 금정구는 오는 15일 부산대 후문 앞 패션타운에서 부산 최초 거리 패션쇼를 개최한다. 패션타운은 부산대 후문에서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사이 200여m에 걸쳐 옷가게 400여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금정구는 패션타운을 금정산성 및 범어사 등과 연계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패션 관광타운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국제신문 5.7/ 연합뉴스 5.11/ 조선일보 5.12/ MBC-TV 5.15/ 부산시보 5.27)

【금정산성 장대 복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성인 금정산성의 유일한 장군 지휘소인 장대가 306년 전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총연장 1만8천여m로 금정산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대는 부산 금정구 금성동 해발 475m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단층 누각 형태를 띠고 있다.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기부 받아 역사적인 고증 작업과 발굴을 거쳐 복원된 것이다. 지신밟기로 시작되는 낙성식도 306년 전인 조선시대에 이뤄졌던 전통양식으로 재현된다.

(국제신문 5.18/ CBS-R 5.18/ 연합뉴스 5.20/ MBC-TV 5.25/ 부산일보 5.26/ 조선일보 5.26/ KNN-TV 5.26/ 동아일보 5.27/ KBS-TV 5.27)

【금정산성 동·북문, 장대 균기 설치】

부산 금정구는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조선시대 당시 균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정산성 동·북문, 장대에 균기 36개를 내걸었다. 이번에 설치된 균기는 동서남북 수호신을 상징하는 청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와 중간에 뱀 그림의 등사기 등이다.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 청룡 등 위용 당당한 전통 문야의 군기와 당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왜구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키던 선열들의 혼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부산일보 6.19/ 연합뉴스 6.23/ 한겨레 6.24)

【서3동 주민센터, 건강도시센터로 변경】

28일 동 통합으로 비워뒀던 서3동 주민센터를 건강도시센터와 서·금사 뉴타운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1층에 마련된 건강도시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 마련한 서·금사 뉴타운 홍보관에서는 뉴타운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연합뉴스 7.28/ 부산일보 7.29/ CJ케이블 7.31)

【300년 전통 ‘산성 막걸리’ 전국 무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막걸리의 세계화와 고급화를 위해 오는 2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막걸리 트랜스포머전’을 개최키로 하고 전국 11개 전통 막걸리들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산성막걸리인 ‘금정산성 토산주’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부산일보 8.17/ 연합뉴스 8.17/ 서울신문 8.19/ 동아일보 8.20)

【금정산성 끊긴 성곽 52년 만에 잇는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산성로 개설로 끊긴 금정산성 성곽이 52년 만에 다시 이어진다.

부산 금정구는 12억 원을 들여 금정산성 동문 옆 산성 고갯길 위에 아치형의 홍예문 형태로 금정산성 성곽을 잇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아치형 성곽 위로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4.5m의 탐방로를 내고 아래에는 차량이 왕래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성곽 복원사업과 함께 금정산성 성곽(18.8km) 주변을 걷는 23km가량의 탐방로도 함께 개설하기로 했다.

(국제신문 8.21/ 연합뉴스 8.21/ YTN-TV 8.21/ CBS-R 8.21/ KBS-R 8.21/ MBC-TV 8.21)

【금정산성 ‘여장’ 복원】

부산 금정구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12월까지 8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정산성 남문과 동문 주변에 여장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고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정산성의 여장 복원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금정구가 계속 설계 승인신청을 하자 한발대 심정보 교수 등 성곽 전문 문화재위원 및 기술자문단의 자문과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 등 기술 고증 끝에 승인을 얻게 됐다. 그동안 금정산성 보수는 여장 없이 성곽과 훼손된 문화재의 부분 보수에 중점을 두었으나 여장까지 복원함으로써 최남단 국토 수비성의 원형 복원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국제신문 9.7/ 연합뉴스 9.7/ 부산일보 9.7/ YTN-TV 9.7/ 한겨레 9.8/ 서울신문 9.8/ KBS-TV 9.8)

【산성막걸리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성 막걸리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문화재청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범어사도 금정산성 막걸리와 관련된 옛 문서를 찾아달라는 금정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정구는 조만간 향토사학자 등으로 ‘금정산성 막걸리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또 산성 막걸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정산성 안에 막걸리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룩을 발효시켜 만드는 산성 막걸리를 후대에 계속 전수하려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KBS-TV 10.1/ 국제신문 10.2/ 한국경제 10.6/ KNN-TV 10.10)

【제14회 금정예술제 개막】

가을의 길목, 금정체육공원(spolpark)을 찾으면 전통예술을 만끽하는 금정예술제를 만날 볼 수 있다. 올 축제는 전국 최장(1만8천845m) 금정산성을 주제로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렸으며 4대 성문과 성곽을 100분의 1 규모로 축소해 행사장을 188.45m로 설치했다. 또 산성의 정취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Smile! Geumjeong, 금정산성을 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시행사로 깃발시화와 금정사진, 희귀 곤충 표본, 야생화, 농원 및 공방 등이 열리며,

금정산성 체험존 행사로 4대문 성곽이미지 조성 체험, 수문장과 함께하기 등을 마련했다. 부대행사로 지역 작가와의 만남, 떡거리 장터, 중소기업 상품 전시, 한방체험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조선일보 10.6/ 부산시보 10.7/ 한겨레 10.8/ 동아일보 10.9)

【칙칙했던 공단벽 산뜻해졌어요】

부산 금정구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인력 등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금사공단 벽화사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도색과 벽화작업을 거친 금사공단의 변한 모습에 공단의 근로자뿐 아니라 주민들도 무척 반기고 있다. 불법벽보 부착도 없어지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금사공단 벽화사업을 희망근로사업의 모범사례로 선정했으며 부산시 등 여러 곳에서 견학을 오는 등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CJ케이블 10.9/ 서울신문 10.22/ 조선일보 10.27)

【‘회동수원지~수영장’ 부산 최고의 그린웨이】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수영장’ 코스가 올해 희망근로사업으로 만든 최고 명품 그린웨이로 선정됐다. 부산시·2009부산걷기축제위원회는 ‘금정체육공원(한물교)~두구교~상현마을~오륜본동~회동댐~동대교~석대교(수영강하류해운대 경계)’ 14km 구간을 희망근로사업으로 가꾼 ‘걷기 좋은 길’ 대상작으로 선정했다.(연합뉴스 11.8/ 조선일보 11.9/ 국제신문 11.24)

【부산 「금샘」, 금정구 향토문화재 1호 지정】

부산 금정산의 ‘금샘’이 금정구의 향토문화재 1호로 지정됐다. 부산 금정구는 금샘을 포함,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문화재 9점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기는 금정구가 처음이다.

(CBS-R 11.16/ 부산일보 11.30/ 연합뉴스 11.30)

【금정구 낙엽모아 농가사랑】

부산 금정구가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모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두구동 농가에 지원했다. 낙엽처리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질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금정구에서 한해 수거되는 낙엽은 60톤 정도이다. 이전까지 수거된 낙엽은 처리비용을 들여 전량 생곡 매립장에 매립했다. 구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농가의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구는 내년부터 낙엽수거량을 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CBS-R 11.16/ 부산일보 11.30/ 연합뉴스 11.30)